

■ 민주당 7·6 전당대회 어떻게 돼 가나



정세균 대표후보



추미애 대표후보



정대철 대표후보

대표경선 “내가 대세”... 초반 경쟁 후끈

최고위원 경선 대표선거와 분리, 흥행 저조

지난 19일 제주에서 접화된 민주당 대표 경선이 초반부터 난타전 양상을 보이면서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대표 경선에 가리면서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도당 개편대회를 시작으로 21일 부산시당, 22일 대전시당, 충남도당 개편대회를 거치면서 당 대표 경선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통합론을 내세운 정세균 후보는 압도적인 지역위원장 확보와 당내 계파의 전반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세론’을 확산시켜 무난한 승리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후보는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추풍(秋風)에 의한 ‘대의원 혁명’이 펼쳐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후보 측은 조만간 개혁 성향 현역의원들의 지지선언과 함께 정대철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 대표경선

정세균 “화합 리더십”

추미애 “대의원 혁명”

정대철 “만형역 최선”

■ 최고위원 경선

박주선 당선권 예상 속

김민석·송영길 상위권

만형론을 내세우고 있는 정대철 후보는 “열린우리당이라는 실패한 이미지로는 안된다”며 열린우리당 의장을 2번이나 지낸 정세균 후보를 적극 공격하며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 최고위원 경선 분위기는 당

대표 경선의 열기가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표와 최고위원의 분리 경선으로 언론의 조명이 대표 경선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후보자 간의 토론회 등 별다른 흥행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각 시도당 개편대회에서 주어진 3분의 발언 시간이 전부인 상황이다. 정치자금법상 당 대표 후보들과는 달리 최고위원 후보들은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자금난’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편, 각 최고위원 후보자 진영에서 실시한 당연직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광주 출신의 박주선 후보가 견고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민주당계의 김민석 후보와 수도권 의 송영길 후보, 전북의 정균환 후보도 상위권에 랭크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후보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습뉴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 당 관계자들이 22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충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습뉴스

호남 출신 與의원 릴레이 인터뷰 해남 출신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

“소외 받아온 전라도 위해 뛰겠다”

“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기 전에 호남 국회의원입니다. 저를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임두성 의원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18세 때 한센병에 걸려 반감제적으로 고향인 해남을 떠나 소록도에서 눈물로 고향을 그렸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전라도 푸대접이 애항심을 더욱 키웠다.

임 의원은 “한센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무시당하듯 서울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 한센병 환자뿐 아니라 전 소외 계층과 전라도와 같은 소외 지역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진척되고 있다”며 “이왕에 하려면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은 또 “호남에 21세기 관광 허브를 구축하고 가장 전라도적인 여행상품을 만들기 위해 호남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라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 의원은 “왜 저를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했는지 그 진정성을 물을 것”이라며 “1회성 이벤트가 아닌 호남의 벽을 허물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전국 유권자를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하지만 고향 분들은 저를 지역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언제든지 건넸으면 한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된 정책 건의사항은 선봉에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약력 ▲1949년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출생 ▲한빛복지협회 회장 ▲국제IDEA협회 이사

■ 한나라 당권 경쟁 본격 돌입

박희태-정몽준 양강구도 속 ‘親李-親朴’ 勢대결 큰 관심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이 22일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한나라당의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에 따라 7·3 전당대회에서는 총 8명의 후보가 당권을 향한 숨가쁜 레이스에 나서게 됐다. 허태열, 김성조, 공성진, 진영, 박순자 의원 및 원외인 김경안 전북도당 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유일한 여성인 박순자 의원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여성 몫 최고위원 선출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결국 당 대표를 포함한 4석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남은 7명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셈이다.

초반 관세는 박희태-정몽준 양강 구도 속에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측 중진인 허태열 의원이 당권 경쟁에 가세해 관세가 흔들리고 있다.

당내 이재오계 핵심 의원으로 분류되는 공성진 의원이나 친박

성향인 진영, 김성조 의원의 득표력도 주목된다.

이번 전대에서 친이, 친박 대의원들의 세 결집이 어떤 양태로 전개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대선후 보 경선 때와 같은 치열한 양측간 세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높지 않지만, 친박측에서 허 의원이 막판에 당권 도전을 선언함으로써 움직임이 주목된다.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박 전 부의장은 ‘대세 굳히기 전략’을 통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당내 좁은 입지가 최대 약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정몽준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열 의원은 ‘친박 대표론’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성진 의원은 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의 책임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연습뉴스

줄줄이 법정 서는 지역 국회의원·단체장

23일 강운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4일 유선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내달 1일 조형래 곡성군수 시기혐의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선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선거 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후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선거운동 대가로 지인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은 “검찰이 편파·왜곡수사를 했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3형사부는 24일 통합민주당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에 대한 첫 재판을 갖는다.

유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와 좌담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역 원로들과의 상견례 모임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한 첫 공판도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조 군수는 군수 당선 전인 2005년 10월께 자신이 모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사하며 축사 등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판 뒤 이 돈을 보충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달 1일에는 자격이 없는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정 난맥상 원인은

靑 정책발표 독점 탓”

이정현 한나라 의원 주장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2일 최근 국정 난맥상의 원인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를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청와대 중심제”식 국정운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시발점”이라며 “이제는 각부 장관이 정부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습뉴스

FILA thanks festival 30%-20% OFF 기간: 6월 20일(금)~7월 13일(일) 일부품목제외